우리모두가 정성과 힘을 모을 때

尹鳳源 / 본회이사 · 건축연구소 원건사 대표

조형 창작예술의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하여 기초를 마련하는 길이란 그리 쉽지 않다고 생각된다. 험난한 길을 예상하며 비장한 각오와 철저한 계획, 그리고 지구력을 갖고 인내로서 진행할 각오를 갖어본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라기보다 후세대의 건축인을 위하여 선배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여겨진다.

① 지난날을 살펴보면—

지난 역사를 돌아보아도 아직은 성숙기에 있지 않음을 느낄 수 있다. 더욱 잘못된 것은 외국의 법을 소화도 못한 채 도입한다는 점이다. 제1회 건축사 시험의 문제점부터 시작하여 계획성 없는 개정작업 등, 이 모든 일들이 모두 문제점으로 남는다. 20주년이 되었으니 이제는 청년기임이 분명하다. 늘 나약한 유년기가 아님을 각성해야 하겠다.

외국법의 모방으로 시작된 협회의 기초에도 문제가 없을 수가 있겠는가, 역시 과거 역사의 시작은 잘못 출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현재의 입장은 어떻게 달라졌나 —

우리 체질에 맞지 않는 법의 도입으로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시적 안목의 개정으로 모순에 모순을 거듭하는 세월을 보내고 현재에 이르렀다.

누구를 위한 법의 개정인지, 또 무엇때문에 개정을 하는 것인지, 그간 수없이 개정된 법이 전문 건축인들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난해한 법이고 보면 비전문인인 국민들은 어떻게 알아서 법을 지킬 것인지? 조형 창작예술인인 건축사가 공무원에 준하는 해석이라던가 또는 건축사 처벌과정에서 보는 것 같이 건축사 본연의 자세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만큼 문제가 많다. 건축법·건축사법 등 관련법의 기준이 모호하고 무계획성하게 이어지고 있어 어느 곳을 고쳐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③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하지만 뒤에서 누가 고쳐주겠지 또는 바로 잡아 주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세월을 흘려보내고 있을 때는 이미 지났다고 느낀다. 우리 모두에게 잘못 된 법에 의하여 피해를 입고 있고 또 진행되고 있으며 점차 더욱 심각한 지경에 이를 것으로 생각된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어려움을 무릅쓰고서라도 잘못된 점은 과감히 개정되어야 하겠고 모든 것이 올바로 운영되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로 남는다. 왜냐하면 누구의 일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일이며 우리가 해야되는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정성과 힘을 기울여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올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선구자가 되어야 하겠다. 협회의 임원·회원·직원 모두가 힘과 정성을 모아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하겠다.

청년기에 접어든 협회 연령을 놓고 보더라도 힘차고 용기있게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투신하고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④ 백년대계를 마련키 위하여—

올바른 법의 개정이란 그리 쉬운 과제가 아니다. 부분수정이나 개정이 아닌 바에는 쉽게 다루어질 성질이 못되며, 적어도 전면 개정에 임하려면 기본계획부터 백년대계를 마련키 위한 자세로 부터 시작해야 하리라 본다. 선진국들의 법도 비교해야 하겠고 우리와 이웃하고 생활권이 비슷한 동양권의 법도 참고해야 할 것이며, 국내 유사단체법도 비교 검토해서 타당한 개정 이유와 개정 이후의 모순이 없도록 완벽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과업을 시작하는 우리들의 각오는 자못 비장한 결심을 하여야 하겠으며 몇 가지 기준을 세워 실천해 나가야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성급하지 않아야 하며 금방 어떤 결과를 바라는 태도는 위험하다. 전면 개정이라든가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란 그리 쉬운 과정이 아니다. 때문에 지구력을 갖고 협회의 모든 힘을 기울여 잘 참고 견디면서 계속하여 작업에 임하는 정신력이 요구된다. 튼튼한 기초를 마련키 위하여도 그러하다.

둘째로 누구의 일정한 노력이나 특정인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건축인 모두의 힘과 정성을 기울여 연구 노력하고 대화하여 올바른 답을 얻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것이다. 현업자나 행정가 그리고 학자도 건축계의 발전을 위하여 화합하고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한다.

어디서 무엇을 하던 "건축"이라는 두 글자는 공동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불편이나 불이익은 대사 앞에서 희생도 불사해야 할 것이며 현재의 불편은 장래의 희망으로 묻어 버릴 수도 있어야 하겠다.